

어느 날 부모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너희들에게 물려줄 테니, 앞으로 우리에게 효도할 생각 없나?"라고 물으신다면... 요즘 매스컴에 소개된 어느 대학교수의 연구결과가 장안의 화제다. 그것은 '돈이 있어 자식들의 공경을 받는다'는 세간의 속설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논문에 의하면 세계 27개국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과 만나는 빈도가 잦아지는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부모의 소득이 1% 높아지면 부모와 자녀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날 확률은 통계적으로 2.07배나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따로 사는 부모나 친지들과 서로 왕래하는 횟수도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면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51.9%가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답변을 했다는 전언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규정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 뿐만 아니다. 얼마 전부터 일부 계층에서는 '효 테크'란 말도 유행이라는 소식이다. 한 마디로 말해 부모를 잘 모시는 행위가 곧 자식들의 명명(?)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윤리에서 강조하는 '자리



**불자 세상보기**

허남걸  
동국대학교 윤리문화학과 교수

**돈 있어야 '효도'를 살 수 있다?**

이타행의 원리'를 곰곰이 되새겨 보게 된다. 왜 부처님은 '이타지리행'이라고 하지 않고, '자리 이타행'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엄연한 자연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양자역학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은 '이기'와 '이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이타'를 우선하고 '이기'를 희생하는 삶보다는 '이기'를 앞세우되, 가능하면 '이타'까지 배려하는 행위를 윤리적인 삶의 한 형태로 권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모와 자식들에게 적용하면 논의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부모와 자식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상대방의 그것보다 먼저 고려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는 양측의 윤리적 사고 방식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도덕성과 어긋나지 않아야 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의 부모-자식 관계가 너무 서로에 대한 도덕적 의무관계로만 인식되어 왔다는 데에 있다. 그 결과 부모와 자식들은 일종의 상호 채권-채무자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 대한 윤리적 기대의 총

족 여부로 대부분의 경우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돈이 있어 자식들의 공경을 받는다'거나 '효 테크'라는 금융상품의 등장은 그와 같은 인간적 불협화음 자본주의적으로라도 해소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교육책이 아니겠는가?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효도라는 '정신적 이익'을 얻고 싶고,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고 싶은 양측의 계산(?)이 이런 식으로라도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서글픈 일인긴 하지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한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경이 되고 있음을 또 어쩌랴!

다행히 윤리학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기 위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거나 또 그것을 도구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윤리학적 접근 방법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또한 어떤 조건하에서도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성이 있음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이를 내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도덕행이상학적 관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건전한 도덕성식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전자의 입장에서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후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 불자들은 돈으로 '효도'를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불자의 눈**

**'죽음의 바닷가'에 자비를**

서해 태안반도 일대가 무참하다. 한 순간의 실수로 유출된 원유가 태안반도 일대를 죽음의 바닷가로 만들어 버렸다. 그곳에 회생을 위한 손길이 분주하다.

불교계도 자원봉사단을 파견해 생태계 파괴를 조금이나마 막아보려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일을 지켜보면 서 아쉬움도 크게 느낀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불교계의 구조조직은 더디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재난의 현장에서 구조구난 활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 다른 단체에 비해 '뭋뭇'을 친다는 것이다. 불교계에는 재난 구조단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다. 조계종과 천태종이 구성한 두 단체가 전부다. 그래서 복지재단이나 단위 사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구조구난 활동에 나서서 제 전투다. 그러니까 조직체제로 미약하고 기동력이 나 전문성도 떨어진다든 것이다.

이번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답답함은 지울 수가 없다. 조계종 복지재단과 총무원, 일부 사찰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 않는데 태고종이나 진각종 등 일련의 종단들은 공식적인 활동과 봉사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연말이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수선한 시절이긴 하지만, 태안반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거기에 많은 일손과 장비들이 필요하다. 불교계의 구조의지가 한 두 번의 자원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생명의 종교, 환경 지키기 종교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불교계가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해 나가길 바란다.

**성직자가 '정교분리' 훼손하다니**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종교계에 수상한 바람이 불고 있다. 다른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 상의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이명박 후보를 초청한 '출대기용 행사'가 열리고 또 일부 스님들이 공개적으로 정경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도 유사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고 있다.

성직자들이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떠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성직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냄새' 나는 행사를 열거나 무리를 지어 공개적으로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혼돈을 주게 된다.

불교계의 수행자나 다른 종교의 성직자는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여야 한다. 종교는 정치와 엄연히 분리될 때 생명력을 갖는다. 인간의 바른 삶을 이끌고 사회의 바른 문화를 이끄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종교는 신성을 추구하고 정치는 욕망에 휘둘린다. 그래서 종교가 세속의 잇속과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에 발을 담그는 것은 자아의 망각이고 직분을 망각한 추태일 뿐이다.

최근 불교계와 이웃 종교계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선거판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에 바쁜 현상을 두고 심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성이 존중된다지만 근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정교분리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회적 원칙이다. 그것을 종교인이 앞장서서 훼손하다니, 그 업보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자중을 촉구한다.

**'종교자유' 칼럼**

**40. 정치권과 정부에 바란다 박광서 (서강대 불학과 교수)**

**종교인 과세·종교인권 보장 등 헌법 준수 의지 요구 돼**

최근 한 대학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교수들은 '차기 대통령이 깨야 할 금기' 중 첫 번째로 '종교계 비판'을 꼽았다고 한다. 부패하고 세력화된 종교계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어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집이 되고 있다는 상황인식이 그 배경일 것이다. 그동안 종교로 인한 사회갈등을 애써 외면해온 정치사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자신들의 세속적 이해관계 때문에 종교가 권력화 하는 것을 부채질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거꾸로 정치권이 공평처럼 커져버린 종교계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한심한 꼴이 되고 말았다.

2007년 대선 후보들의 종교문제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종교인 과세'나 '교육법·공무원법에 종교종류 조항 추가' 등의 질의에 대해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적극적이고 명확한 입장으로 성실히 답변한 데 반해, 정동영 후보는 긍정적이지 못하면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여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으로 비쳐졌다. 이회창 후보는 무응답 내지 소극적이었고, 이명박 후보는 아예 공식답변을 거부했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경우 "강력한 지지세력인 기독교계에 점수 깎일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헌법을 준수해달라는 국민의 뜻보다 장로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개신교계의 뜻이 더 소중함을 확인시켜 주고 있어 종교계에 뒷덜미를 잡힌 우리나라 정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고 우려스럽다.

헌법 상 당연한 문제제기를 두고 대통령 후보들 간의 인식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증거다. 그나마 종교시민단체와 정치권 일부(아직은 민노당 정도지만)에서 그동안 '금기'로 여겼던 종교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반시지탄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이끌 지도자로서 치명적 결격사유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80% 가량이 가톨릭 신자인 멕시코에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공식적인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종교계와 정치권의 불협화음적 접촉을 억제하는 법을 만들거나 시민운동을 벌여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견제세력으로 살아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문제화 될 쯤 집이 보이는 종교인 과세 문

제도 조세평형과 국민감정을 고려해 바로잡아야 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연봉 10억이 넘어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종교서비스업'이란 특수 업종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만, 관행이란 이름으로 세금을 안 내는 '특수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꼬박 꼬박 세금을 내는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며 사회정의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2006년 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조사에 8만 명이 참가해 86.3%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민의 종교인권 보장과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중립도 시급한 문제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명시된 헌법 제20조도 선언적 의미 이상의 현실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에 비해 일본 헌법 제20조는 1. "신앙의 자유

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 받지 않는다", 3. "국가 및 어떤 국가기관도,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헌법을 손대기 어렵다면 하위법에서라도 실질적인 힘이 살리도록 개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종교사학에서 학생들이 특정종교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강의석씨 사건에서도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한 대광고의 강제예배 건은 승소했지만,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오히려 "학교를 강제할 법규"가 없다는 핑계로 직무유기를 해온 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부가 '나 플라라' 하는 사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까지 국민 개개인이 힘겹게 싸워서 지켜내야 한다면, 세금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든 기본권 보호는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던 말인가. 처벌조항이 없다면 법을 보완해서라도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장(법)' 타령만 하고 '일감독'을 하지 않는 종정부에게 국민(국민이) 그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국민은 피관하고 허탈하다.

前 프랑스 대통령 조르주 피파두는 "정치는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정치인을 말하고, 정치꾼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이용하는 정치인을 말한다"고 명쾌하게 구분하였다. 알파한 계산에 매달려 헌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조차 외면하는 사람은 정치꾼일 뿐 진정한 정치가일 수 없다. 종교 관련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법제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제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력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평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지로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론 및 책자 신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관음당)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심성 정화교육**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신라 화랑들의 수련장이며 조선시대 승병들의 동해안 본부였던 함월산의 전통사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단련을 위해 제 32회 겨울 수련회를 개최 합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과중한 학습으로 신체가 허약하고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를 통한 심성 정화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외국인 사범과 원어민 영어 강사가 함께 지도하는 ‘영어로 배우는 선무도 캠프’로서 주지스님이 직접 불교 강의와 인성교육을 지도합니다.

\* 인 제 : 2007년 12월~2008년 2월

\* 모집인원 : 수시모집(1주, 2주, 3주, 한달 이상) 매주 일요일 입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200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1개월씩 4회 이상 수련 시 1단 승단 심사 자격 부여)

\* 대 상 : 초등, 중등 학생 (고교생은 일반인 템플스테이)

\* 수련회비 : 1일 3만원 · 1주일 21만원 · 1한달 70만원  
(교복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농협 721107-52-037300 : 설기준 골굴사

\* 접수 및 문의: Tel (054) 745-0246, 744-1689  
Fax (054) 746-0172, 홈페이지: www.sunmudo.com

\* 수련내용:

1. 불교의 아나파나사타 명상 · 선요구 · 선기공 · 선무술 · 불교한문 · 전통문화(번소리, 승가, 다도, 전통춤)
2. 禪 무드라 명상 테라피 수련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 (이탈미 교수님, 무용화)
3. 주지스님의 초발심자정문과 부모중생 강의를 통해 인성교육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회화를 원어민이 지도합니다.
5. 화랑의 기상과 호연지기를 느끼는 승마체험.

\* 준비물 : 세면도구 · 필기도구 · 운동복 · 운동화 · 개인 컵  
장갑 · 모자 등 (현금, 휴대전화, MP3 휴대 금지)

**▶일과표**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내용		
5시	기상	10시	오전 선무도 수련	13시	독서와 사색	18시	저녁 공양		
5:30	새벽 예불 · 좌선 및 행선		10:30	화랑기도	14시	전통문화 강습(민소리, 다도, 승가 등)	19시	저녁 예불	
7시	이침 공양(1회 불우공양)	11시	· 자야를 향한 서원	15시	오후 선무도 수련 · 등산	16:30	올레도랑 청소 및 정리	21시	정호 및 취침
8:30	불교 강의 · 영어회화	12시	점심 공양						

◆매주 1회 성지순례 : 장항사지 · 감은사지 · 문무대왕릉 등

**1500년 전통사찰 · 연인원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